

2006년도 TTA 표준화위원회별 추진방향



■ 전략계획위원회(SPC)



의장 하 덕 응

국제표준이 WTO 체제 출범 이후 국제규범의 하나로서 그 준수여부가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표준화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표준화기구들은 전략적 표준화 항목의 도출과 표준화 추진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효과적 표준화 추진을 위한 신속 표준 제정절차와 여타 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전략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년도 및 중기 표준화 과제계획 수립과 표준화위원회 운영규정 및 요령을 개편하고 있으며, 표준제정 단계에서의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도에 본 위원회 산하 계획전문위원회에서는 IT839 전략 표준화로드맵의 이행을 위하여 정보통신 표준총회 산하 기술위원회(TC) 소관 분야별 표준화 기술동향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표준화 중기(3년) 과제계획과 2006년도 중점 표준화 과제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용자 의견반영 전문위원회에서는 주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이용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작업방법 Adhoc 그룹에서는 TTA 운영규정 및 요령 제정/개정안을 검토하였으며, TTA 작업절차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을 위하여 규정의 신규 프레임워크와 세부 항목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연구결과는 직접적으로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006년도 본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을 토대로 하여 전략계획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정보통신표준화 활동방향 정립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수시 결정사항에 대한 적극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전문위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위원회별 표준화 과제계획을 수립시 IT839 전략의 이행을 위한 IT839 전략 표준화 로드맵과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용자 의견반영 전문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에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준화 추진대상 IT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별하고, IT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난해한 용어들을 일제히 정비하여 소비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표준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방법 adhoc 그룹에서는 TTA 표준화 작업절차 및 위원회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위원회 위임사항의 범위내에서 전략기획 능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위원회차원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통기반기술위원회(TC01)



의장 조병진

공통기반기술위원회(TC1)는 정보통신 관련 모든 분야의 공통기반 요소들에 대한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 인터넷보안, 생체인식, 복지통신, 재난관리, SoC, 임베디드 S/W, 공개 S/W, DRM 등 총 9개 전문분야의 프로젝트그룹이 구성되어 있으며, IT839 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 수행된 TC1의 표준화 연구결과로 정보보호기반 분야의 ‘홈서버 중심의 홈네트워크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 등 9건의 표준과 인터넷보안 분야의 ‘안전한 무선랜 사용을 위한 가이드’ 등 9건의 표준, 바이오인식 분야의 ‘생체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통신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의 화면읽기 프로그램 ‘햅키’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재난관리에서는 긴급상황 발생시나 재난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기술로 ‘한국형 디지털 TRS(TETRA) 기본표준’ 등 77건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IT839와 관련해서는 SoC에서 반도체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IP 등록’ 표준과 임베디드 S/W에서는 각종 전자제품들의 원천 S/W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요구사항 명세’ 등 9건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5년 신설된 공개 S/W에서는 ‘리눅스 서버/데스크탑 규격’을 제정하였고, DRM(디지털저작권관리) 분야의 표준화 연구도 추진키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IC카드는 생체인식과 통합하여 ‘생체정보에 기반한 IC 카드’에 대한 표준을 개발키로 하였다.

2006년 TC1에서는 “홈네트워크를 위한 보안기술 프레임워크” 등 30여 건의 정보보호 분야의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며, TETRA 기술의 ISI(Inter-System Interface) 표준을 개발하여, 이를 국내표준으로 제정후 필요시 ETSI, MESA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산하 전문 분야별 유관 표준화 기관들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표준화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서 업체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의 최신 기술·표준화 동향과 고객 요구사항에 기초한 표준화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및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TC1에서는 국제 표준 기구인 ITU-T SG17(보안)을 중심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2005년 실적을 살펴보면, SG17-Korea와 협력하여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 34개 기고문을 제출하였고, 현재 26개 의장단 의석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를 기반으로 2006년 4월, 제주도에서 개최될 SG17 국제표준화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의장단 수임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보안 기술들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국외 보안 기술들에 대한 검토 및 대응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송통신기술위원회(TC02)



의장 민 경 선

전송통신기술위원회는 광전송, 광인터넷, 망관리, NGN, 액티브 인터넷, 신호방식, VoIP, 요금 및 상호 접속, IPv6, IAR, 구내통신, 디지털홈, 서비스품질, 접지, 옥외설비, 이더넷 등 총 16개 전문분야별로 프로젝트그룹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NGN, VoIP, IPv6, 디지털홈 분야는 IT 839 인프라 및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내외적인 표준화 활동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05년도에는 광통신 관련 표준화, MPLS 및 GMPLS 관련 표준, Parlay 관련 표준, 인터넷전화(VoIP)와 시네전화간 번호이동성 관련 표준, BcN 표준모델, IP 주소체계 관련 표준, 디지털 홈 관련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등 전송통신과 관련된 총 199건의 단체표준과 3건의 기술보고서를 제/개정하였다. 특히, NGN 망 구조 참조모델, NGN 서비스 요구사항 등의 NGN 관련 표준화는 TTA의 단체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ITU-T SG13에 국제표준으로 기고하여 국내 및 국제표준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6년도에는 국내 BcN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인터넷전화의 사업자 연동 표준 규격 등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IETF에서 제정된 국제표준 중 인터넷 텔레포니 사업의 기반이 되는 VoIP 관련 SIP 규격과 IPv6 활용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TTA 단체표준으로 수용하여 관련 업체들의 장비개발 및 사업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홈네트워크 분야의 표준화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홈 지향의 서비스 표준과 센서 네트워크 및 이를 통한 가정 내 위치기반 서비스 등 국내 디지털 홈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2006년도 전송통신기술위원회에서는 산하 전문 분야별 관련 포럼, 협의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표준화 관련 정보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표준화를 주도해야 할 업계 위원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표준화 요구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함과 동시에 표준화의 중요성에 따른 표준화 작업의 참여의지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국내의 최신 기술동향과 국제표준화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정책과 통신시장 및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표준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도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실질적인 표준을 만들고, 주요 표준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송통신 분야의 주요표준화 기구인 ITU-T SG(Study Group), IEEE, IETF 등 다수 국제표준화 기구에 질적으로 향상되고 활발한 기고문 작업과 회의참가를 통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빠른 국내 피드백을 통한 국내표준 반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전파방송기술위원회(TC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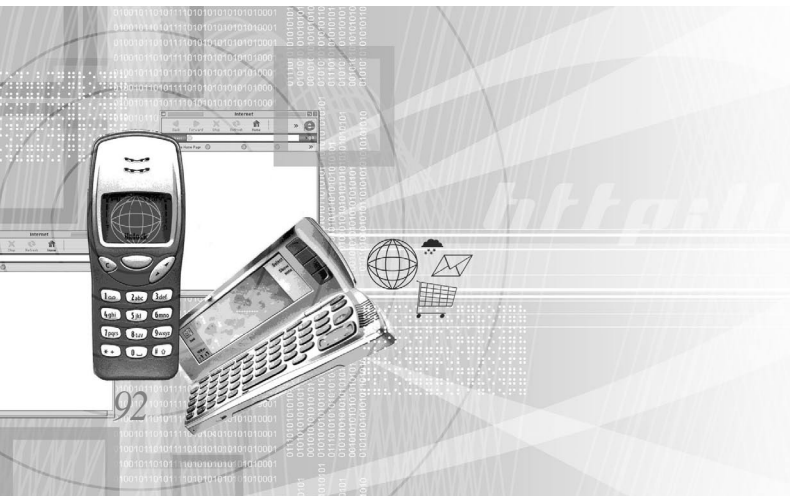
의장 김 영 균

지난해 정보통신 표준화는 TTA가 중심이 되어 WiBro와 DMB 표준화 등에 주력했고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의 전략적 표준화 활동을 통해 현재 IT 분야에 관한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자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성과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파방송기술위원회(TC3)는 산하 프로젝트그룹(PG)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주어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표준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파방송기술위원회는 2006년도에 3GPPs, OMA, CJK 표준 활동을 위한 국내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CJK B3G 회의를 통하여 차세대이동통신 관련 한·중·일의 표준 공동협력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ITU-WP8F 활동에 맞춰 관련 IMT-Advanced를 위한 주파수 산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WiBro의 경우 2005년도의 성공적인 성과에 이어 WiBro 고도화 표준을 새로 진행할 목적으로 IEEE 802.16 내에 신규 SG를 금년 중반에 결성하여 지속적인 WiBro 기술/표준 리더십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유비쿼터스 통신의 근간이 되는 WPAN 표준기술은 국제표준 동향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가며, DMB 부분은 수도권에서 지상파 상용서비스가 개시된 것을 계기로 데이터 서비스 관련 기술은 국내 표준화를 먼저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에 반영 예정이며, 수신기 품질규격은 ISO/IEC를 통한 국제표준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파방송기술위원회는 방통 융합 요구에 부응하여 케이블 기반 홈네트워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력선 통신의 운용 주파수 확대에 따른 표준 및 규제에 대응하며 RFID는 ISO 국제표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도입함과 동시에 모바일 RFID, 코드 규격, 리더/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국내 고유의 표준을 제정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IT839 전략 부문이자 전파방송기술위원회의 산하 분과인 WiBro, DMB, 3G, RFID 등 분야에서의 기술 및 표준 리더십 확보에 진력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아울러 전파방송기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중요 정보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에 매몰되어 시야가 좁아 지지 않도록 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창출하는 내실 있는 표준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전파방송기술위원회 산하 여러 프로젝트그룹들은 국제표준화 AdHoc 그룹을 추가로 두어 전략적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 항상 세계 시장을 고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TTA의 올해 역점 사업 내용에 맞춰 핵심 시험기술 확보, 국제 표준화 추진 등에 역량을 집중 발휘하고 TTA의 표준화 활동 3대 요소인 TTA 표준화위원회, 표준화 전략 포럼, IT 국제표준화 전문가간의 협력관계를 강화 및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이러한 전파방송기술위원회의 다각도의 표준 및 관련 지원 활동이 TTA는 물론 국제 정보통신 표준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IT응용기술위원회(TC04)



의장 류 광택

2006년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여 2005년 을유년 한 해 동안 IT응용기술위원회(TC04)에 한결같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올 해도 IT 환경의 신속한 변화와 국제적으로 치열한 표준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05년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전략 하에서 IT응용기술위원회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표준을 산업계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예제와 함께 제정하여 살아서 움직이는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IT839 등 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민간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국제 표준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표준성과를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IT응용기술위원회는 2006년을 한 차원 높은 표준화 추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 웹, 멀티미디어 응용, 전자거래, 워크플로우, 공공정보, 메타데이터, S/W컴포넌트, NGIS, 그리드, S/W 품질평가, 지능형 서비스 로봇, 분산자원서비스 등 12개의 프로젝트그룹(PG)에서 국제표준화조직, 국내 관련 포럼 및 전문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차세대 웹이라고 하는 시멘틱 웹과 관련된 온톨로지, 문서객체모델 등의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웹 사용자 도구 접근성, 저작도구 접근성 등 웹의 보편적 이용에 필요한 표준, 웹서비스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표준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e-business 표준화 분야에서는 전자거래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기업 내/외부 통합에 필요한 메시지 전송 포맷 및 방식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및 관리 표준, 전자거래 관련 보안 표준, 차세대 비즈니스를 위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관련 표준 등을 개발, 보급하여 e-비즈니스 관련 솔루션 개발의 활성화 및 신뢰성있는 전자거래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공공정보 PG는 기제정되어 보급중인 시스템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하드웨어 용량산정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S/W 컴포넌트 PG는 OMG의 SPEM, SysML 표준작업에 참여하고, 웹 PG는 OASIS의 품질모델 기술위원회, W3C 등에 참여하여 국제화를 지향해 갈 것이다. 2005년도에 신설된 S/W 품질평가, 지능형 서비스 로봇, 분산자원서비스 PG는 금년도가 본격적인 표준 활동의 원년이라는 인식하에 신규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제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IT응용기술위원회뿐 만아니라 TTA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전문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TTA**

